

아워홈, 경영권 분쟁 ‘떡구름’... 노조 “구지은 체제 유지해야”

〈아워홈 부회장〉

지난해 최대실적... 성장세 찬물
구지은, 사내이사 선임안 부결
구본성,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아워홈 마곡 사옥

/아워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아워홈이 내일의 경영 다름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창업자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가 연대해 현재 아워홈을 이끌고 있는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밀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워홈 노동조합은 구 부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본사에서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는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부결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지은 부회장은 오는 6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날 사내이사에는 구미현 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올랐다. 구미현 씨가 제안했고, 표결에 따라 통과됐다.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세 명을 두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6월 전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

장은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구 전 부회장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지난 주총에서 선임이 불발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 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 씨의 사내이사선임의건,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본성 본인 선임의 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워홈 노조는 구 부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아워홈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를 규탄하며 구지은 부회장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영에 무지한 구미현, 이영렬 부부는 이사직 수용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아워홈의 주인은 노동자들이다, 대주주들의 경영권 싸움으로 아워홈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너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구미현 씨 부부는 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하다. 구미현 씨는 전업주부로 그동안 아워홈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데다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의 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0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했으며, 자식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했다”며 “또한 형사 재판 중인 본인의 혐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감사 자격을 운운하며 재선임을 반대하고 보수 지급도 막아 아워홈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워홈은 구지은 부회장 경영 체제 하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1조983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4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무려 76%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에스티팜, ‘K-올리고’ 글로벌 영향력 키운다

제론 등 고객사 신약 도전 줄이어
내년 하반기 ‘제2 올리고동’ 가동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에스티팜

전 세계 무대에서 ‘K-올리고’를 알리고 있는 에스티팜이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본격 나선다.

2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리고핵산 원료를 위탁개발생산(CDMO) 하는 에스티팜이 급변하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 환경에서 치료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올리고핵산은 리보핵산(RNA) 치료제 핵심 원료다. RNA 치료제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활용한 약물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특정 단백질 생산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췄다.

에스티팜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알아내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RNA 치료제가 신약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에스티팜의 고객사 중 하나인 미국 바이오 기업 제론의 경우, 골수형성 이상증후군(MDS) 치료제 ‘이메텔스타트’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로부터 허가권고 의견을 받았다. 최종 허가 여부는 오는 6월 경 이뤄질 전망이다.

‘이메텔스타트’가 미국 FDA로부터 신약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상업화 물량 생산이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티팜은 일찍이 ‘이메텔스타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제약사 아이오니스의 ‘도니달로센’, ‘올레자르센’ 등도 약물 승인을 노리고 있어 에스티팜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도니달로센’과 ‘올레자르센’ 모두 올리고핵산을 원료로 하는 치료제다.

RNA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라 에스티팜은 제2 올리고동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제2 올리고동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 올리고동이 완공되면 에스티팜의 올리고 생산능력은 연간 14mol(최대 7t)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현재 생산능력인 6.4mol 대비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에스티팜은 생산능력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제일약품, ‘자큐보정’ 국산 신약 등극

〈위산분비 억제제〉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 자체 개발
효능·안정성 입증... 연내 출시 목표

‘국산 37호’ 신약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3종사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제일약품은 지난 24일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자큐보정’은 국산 ‘신약 37호’에 이름을 올렸다. 국산 신약의 등장은 지난 2022년 11월 허가받은 대응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자큐보정’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다. 자큐보가 세 번째 국산 P-CAB 제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같은 계열 약물로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응제약의 ‘팩수클루’ 등이 각각 2019년, 2022년 출시됐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에서 P-CAB 약물은 양성자 펌프에 결합해 칼륨 이온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반면, 기존 양성자 펌프 저해제(PPI) 약물은 위산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양성자 펌프에만 비가역적으로 결합한다.

이에 대해 온코닉테라퓨틱스는 P-CAB 약물은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P-CAB 약물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약효가 빠르다. 또 위 내 산성 환경에서 안정성이 높아 위 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자큐보정’은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영업, 판매, 유통 등은 관계사인 제일약품이 맡는다. 아울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중국 제약기업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자큐보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1억275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청하 기자

옛것·새것 어우러진 감성 주점... ‘아침산 저녁바다’ 입소문

수제튀김 등 50여개 요리 각광
프레스원 통해 식자재 확보



아침산 저녁바다 매장 전경

/CJ프레시웨이

한식 주점 ‘아침산 저녁바다’가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와 메뉴로 MZ세대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18년 용인에서 처음 문을 연 ‘아침산 저녁바다’는 옛것과 새것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한식 기반의 메뉴 구성과 빈티지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요즘 한식 주점’의 맛과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침산 저녁바다’는 5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현재 전국 매장 20여 곳을 운영 중이다.

재료를 사용한 메뉴들이 인기가 높다. 식자재는 CJ프레시웨이의 외식 식자재 유통 전문 자회사인 ‘프레스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프레스원’은 PB 포함해 상품 약 3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 배송을 책임진다.

옛 정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도넛길을 끈다. 과거 포장마차를 새롭게 재해석한 공간은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되찾아주고, MZ세대에게는 색다른 흥미를 선사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제일제당, ‘동치미물냉면’ 전면 리뉴얼

동치미 함량 높이고 레몬즙 더해

CJ제일제당이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동치미물냉면(사진)’의 맛과 패키지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치미물냉면’은 평안도식 정통 레시피로 간편식 냉면 시장에서 19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동치미물냉면’은 제주산 겨울무로 담은 동치미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육수에 동치미 함량을 높이고 레몬즙을 더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구현했다. 또한

최고 수준의 면 제조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온에 볶은 메밀을 활용해 더 쫄깃한 식감과 구수한 메밀향을 살렸다.

제품포장 디자인도 바꿨다. 냉면이 떠오르는 시원한 푸른색을 바탕으로 제품명과 이미지 크기를 키워 ‘깊고 시원한 육수’라는 특징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신원선 기자